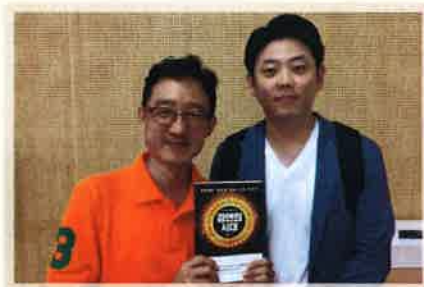


었다면, 이 책은 강연 에이전시 대표가 교육 담당자와 강사를 제삼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본 것을 다루었다. 그래서 자칫 강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다. 강연 에이전시는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하겠지만, 강의의 수요처(기업, 공공기관 등)와 공급처(강사)를 연결해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다 보니, 강의 후에 교육담당자가 전달하는 피드백은 강사가 직접 요청하기 전에는 듣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책에서는 저자가 경험한 여러 긍정적/부정적 사례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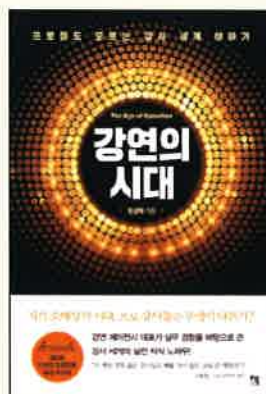


오상의 저자와 함께

강사라는 직업의 선입견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외향적 성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력보다는 오히려 책을 출간한 저자로서의 경력이 더 강점을 갖는다고 얘기한다. 또한,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프로강사 6인의 인터뷰를 들려줌으로써 독자에게 신뢰와 실전 팁을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특정한 강사 한 명의 노하우가 아닌, 다양한 강사를

지켜봐 온 저자가 강사라면 갖춰야 할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와 지식을 전해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색다른 점을 소개하자면, 당초 크고 작은 출판사들로부터 출간을 외면당했다. 독자층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였다는데, 그럼에도 이 원고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정성으로 브런치 포털에 올렸다. 그런데, 입소문을 통해 카카오톡 메인 등에도 오르면서 결국 제3회 브런치북 대상을 수상하며 당당하게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브런치 독자들도 인정한 글이니만큼, 저자의 강연 업계 7년 경험을 가감 없이 들어볼 수 있다. 특히, 강의를 직업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한 초보강사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



강연의 시대

오상익 저 / 책비



글 | 김용현

자기설계연구소 대표
삼성전자에서 20년을 근무한 뒤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들을 위해
개인의 성장을 돕는 삶을 선택
했다. 자기탐색, 역량개발, 진로
설계 강의 및 상담을 하고 있다.

andrewkim2016@naver.com